

제1회 아시아·태평양 화장실 네트워크 회의



편집부장 박 윤 남

국제적인 화장실 문화의 변화추세를 확인하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화장실 협회의 활동사항을 견학하기 위해 협의회 심재덕 회장 등 34명의 화장실 관계자가 일본을 방문하였다.

제1회 아시아·태평양 화장실 네트워크 회의(이하 '네트워크 회의')가 지난 11월 9일부터 3일간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市)에서 열렸다. 일본의 제16회 전국 화장실심포지움과 병행 실시된 네트워크 회의는 한·일 양국에서 공동 개최되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월드컵과 화장실」, 「아시아·태평양 화장실 네트워크 회의의 활성화 방안」, 「세계 화장실협의회 발족 논의」, 「관광지 화장실의 유니버설 디자인」등을 주요 주제로 심포지움이 시작되었다.

협의회 심재덕 회장 기조연설

(사)한국화장실문화협회의 심재덕 회장은 월드컵 개최도시 시장(수원시장)임을 감안하여 일본측의 요청으로 「월드컵과 화장실」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하였다.

기조연설을 요약하면,

첫째, 월드컵 개최의 중요성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하여 한국은 8조원, 일본은 1조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축구경기장 예상관람객 연 350만명에 TV시청인원 연 430억명이 지켜보는 세계적인 이벤트로, 관광한국의 이미지 개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인 월드컵을 대비하여, 불결한 화장실의 개선은 관광의 중요한 인프라(infra) 구축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둘째, 협의회 활동 소개와 함께, 앞으로 한국의 화장실은 문화·복지·환경이라는 세가지 테마를 가진 화장실을 지향하겠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많은 시설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용빈도가 낮은 「장애인 화장실」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칭)편리한 화장실」로 개선책을 연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셋째, 화장실 문화 개선에 세계적인 연대가 필요하며, 아시아·태평양 화장실 네트워크 회의 결성을 계기로 세계화장실문화협회의가



▲ 국제교류인의 밤 행사장, 심재덕 회장의 제안으로 각 국 대표들이 손을 잡고 아리랑을 부르고 있다.

협의회 심재덕 회장이 제안한 「세계화장실 협의회」 결성이 2001년 싱가포르 회의에서
활동방향을 확정하여 2002년 한국에서 발족하기로 합의되었다.

발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하였다.

세계 화장실 협의회 발족 합의

올해 처음 개최된 네트워크 회의는 작년에 일본에서 14개국 화장실 협의회 대표자들에 의해서 제안되어 개최 되었으며, 내년 상반기에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2001년 싱가포르회의에서 본격적인 활동 방향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9월 수원에서 개최된 「제1회 한·일 화장실 포럼 2000」 행사 당시 심재덕 회장이 제안한 세계 화장실협의회 결성도 2001년 싱가포르 회의에서 활동방향을 확정하여 2002년 한국에서 발족하기로 합의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관광지 화장실의 「유니버설 디자인」

일본 화장실협회 심포지움의 주요 주제인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추진과정은 94년 하트 빌딩법(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2,000㎡ 이상의 건물에 장애인, 노약자 등이 불편하지 않게 정비를 요구함)에 의해 건축물의 엘리베이터 프리화가 추진되고 금년 11월부터 교통 벨리어 프리법(공공 교통사업자에게 신설하는 여객시설, 차량 등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장애자용 화장실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시행하여 장애(또는 장벽)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보다 구체적이고



▲ 한·일 화장실 포럼 2000행사의 성공개최에 대하여 일본 니시오카 히데오 회장이 본 협의회(사무국장 강석남)에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좀더 적극적인 디자인 수법으로 처음부터 장애물을 없애어 21세기에는 누구라도 자립해서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외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관광지에도 도입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관광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장애(또는 장벽)를 제거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일반인이 똑같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고속도로 휴게소, 공원, 상가 등에 인접한 공중화장실을 방문하면 장애인 통행로가 별도로 없었다.

처음부터 장애인(휠체어)통행로가 필요없는 공간, 한국의 장애인 단체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지 않다는 주장이 이해가 되었다.

같이 참여한 업체 대표가 화장실 사용인식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문화공간으로 가꾸고 있는 것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편리성과 청결성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공중화장실을 문화공간으로 가꾸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극찬하였다.

장치인 '노크 - 노'가 청각장애인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고 설명하자 질문과 함께 메모하는 일본화장실협회 회원들을 보며 느낀 바가 컸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일본화장실협회의 「Good Toilet 10」선정을 위한 화장실 판넬사진을 보며 각 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화장실 사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문화공간으로 가꾸고 있는 것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편리성과 청결성 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공중화장실을 문화공간으로 가꾸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극찬하며, 16년의 경험을 예로 들며 신속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화장실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화장실 문화 개선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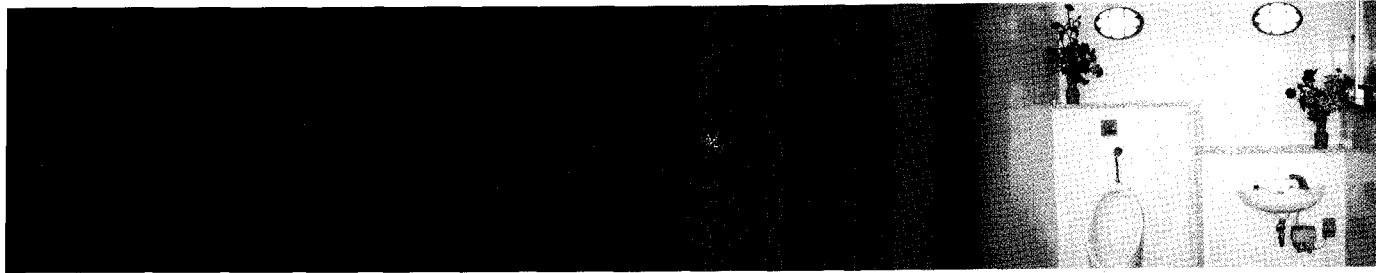
한국 측 참가자들은 일본의 굿 토일렛(Good Toilet) 선정과정, 유지관리 방법, 장애인 및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이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에 대해 질문하며 메모하였다.

행사장 밖의 마쓰에시는 마치 정원(庭園)을 옮겨 놓은 듯 깨끗하고, 일본의 전통이 담긴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가로수 사이로 주요 관광지를 안내하는 옛날 전차모양을 닮은 셔틀버스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외치는 우리의 지자체에도 검토를 권하고 싶을 만큼 인상적인 관광버스였다.

청결한 시가지(市街地)와 함께 인상깊었던 것은 일본의 선진적 교통문화였다.

일본은 우리보다 산악지대가 많은 이유





때문인지 대부분의 도로는 편도 1-2차선이지만 우리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속추월 또는 경음기 사용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안전운전을 하고 있으며 마쓰에시를 걸어다녀 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개최도시 실무 담당자들을 만날 때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월드컵이 끝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정착」과 「교통문화 정착」두 가지만 성공하여도 월드컵은 성공적인 개최라고 한다. 그러나 월드컵 개최도시에 한가지 더 제안을 한다면 월드컵을 계기로 「청결한 도시환경 가꾸기」사업이 하나정도 추가된다면 월드컵을 가장 성공적으로 개최한 도시로 기억될 것이다.

◆ 일본 마쓰에시 방문단

- 심재덕, 강석남, 박윤남(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
- 김황래, 정대권(서울시청)
- 안영철, 오덕희(인천시청)
- 이재철, 이필웅, 장성섭, 김봉중(수원시청)
- 이윤호(월드컵인천문민협)
- 오승태(월드컵울산문민협)
- 윤명원(한국관광협회)
- 김성숙, 허경자(화장실문화인천시민연대)
- 백홍식, 김현철, 이종호, 김철규, 김충관(수원화장실문화협의회)
- 정순문, 한정구(요식업협회)
- 조의현(산본연구소) • 전영상(동양공업대학)
- 이장규(창신건축사사무소)
- 신계철(네오건축사사무소)
- 박용성(간삼건축사사무소)
- 최병식(주, 태화전공) • 이영호(주, 향기마을사람들)
- 정충국, 조용훈(CR코리아)
- 김영목, 박현규(동신산업)

